

뮤지컬·연주회 라이브 실황으로 본다

광주문화재단 '엑스칼리버'
7월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네이버 공연 TV·유니버설 V LIVE
피아니스트 '랑랑' 공연 22일 생중계

'유명 공연을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만난다.'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무료로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SAC on Screen(악 스크린)' 프로그램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은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실시간 라이브 중계한다.



7월 2일 라이브 중계되는 뮤지컬 '엑스칼리버' . /연합뉴스



피아니스트 랑랑.

서도 생생한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클럽에서 즐기는 콘서트 클럽'을 주제로 세계 각지의 클럽을 찾아다니며 클래식·클럽 음악에 영감을 섞어 무대에 올리는 '엘로우 라운지'는 지난 2004년 베를린에서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22일(오후 7시30분) 인천 클럽 크로마에서 열리는 공연을 라이브로 즐기는 이날 행사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이 출연한다. 네이버 공연 TV와 유니버설뮤직 V LIVE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LANG LANG goes to CLUB'에는 평창 올림픽 폐막식 무대를 선보였던 DJ 레이든, JTBC '팬텀싱어2' 우승자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도 함께 출연한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DJ 레이든의 무대로 막을 올리고, 오후 8시부터 랑랑과 포레스텔라의 협연 무대가 펼쳐진다.

랑랑은 이날 공연에서 멘델스존의 '몰레의 노래',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바흐의 '미뉴엣', '아리랑' 등을 담은 신보 '피아노북' 수록곡을 연주한다. 사이먼 래틀, 다니엘 바렌보임 등과 협연한 랑랑은 베이징 올림픽, 광저우 아시안 게임 등에서 연주했으며 매탈리카, 스티비 워너 등 다른 장르의 뮤지션과 함께 무대를 꾸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https://tv.naver.com/l/28239>, <https://www.vlive.tv/video/13327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호남 작가 작품 한자리서 만난다

'동·서 희망 아트페스티벌'
7월3일까지 광주 드영미술관

영·호남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시지회(회장 박지택)가 주최하는 '동·서 희망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7월3일까지 광주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업작가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호남 지역 작가들 이외에도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제주 지역 전업작가회 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한다.

오는 7월 12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업작가 100

여명이 참여해 개성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또 전업작가회 태동 때부터 함께 해온 원로작가들로, 고문을 맡고 있는 김영태·조규일·강봉규·박행보·이돈홍·우제길·김인화·화백 등도 작품을 내놓았다.

광주에서는 강남구·김영화·류현자·문명호·변경섭·박동신·송필용·신수정·유수중·정삼삼·조문연·정예금·최항 작가 등 모두 6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자신의 대표작을 출품했으며 대구에서는 지희장을 맡고 있는 정혜정 작가를 비롯해 강정옥·김경희·김유경 작가 등 22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또 부산 지역에서는 박동호 지희장의 조각 작품을 비롯해 김영주·백명숙·신은주 작가 등 17명이 작품을 선보이며 올해 함께 한 제주에서는 한용국 지희장 등 9명이 풍경화, 정물화 등을 선보인다.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혜정 작
'언제나 내곁에'

공간·장소에 대한 개념 사진·영상으로 표현

박세희 초대전 7월 2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 1996년부터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신세계 미술제'를 열어왔다. 특히 수상작가들의 개인전을 개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6년 제18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세희 작가의 초대 개인전이 오는 7월 2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2014, 2018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세희 작가는 이번 초대전에서 '비장소(non-places)'와 '중간지대'를 주제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을 표현한 사진과 영상, 설치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Bon Voyage'

작가가 주목하는 '비장소'는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크 오제가 현대사회의 특징을 기술하며 도입한 개념으로 '장소'가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머물며 형성되는 관계성과 역사성을 갖는 곳이라면, '비장소'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환승의 장소이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을 말한다.

박 작가는 우리가 매일 이동하며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공항, 기차역과 같은 교통수단의 대기장소나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 간 관계의 부재를 특성으로 지닌 '비장소'를 촬영, 공간이 갖는 의미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

석했다.
미술제 심사평에서 박세희는 "풍경을 매개로 그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작업의 노정을 연출 사진에서 출발하여 비디오 작업으로 확장하여 가장 동시대적인 실험을 감행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았다.

박 작가는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런던 UAL 캠퍼스에서 순수예술 석사학위와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과정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2일 마재근린공원 별별장터
광주서구생활문화센터

광주서구생활문화센터(센터장 이은기)는 22일 오전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재근린공원에서 2:30대 청년들이 기획·운영하는 별별장터를 연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별별장터는 2:30대 '별별 손기술 공방 과정'을 마친 청년 24명이 주축이 돼 기획한 행사다.

이날 장터에는 지역 셀러 30팀이 신청했으며 가죽공예, 손뜨개 인형, 도예, 퀼트, 과일청, 수제쿠키, 슬라임, 캘리그라피, 목공 작품 등 직접 손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도 열린다. 서구생활문화센터 동호회인 '한사모(한국무용)', 'J.N.J.C(방송댄스)', '비전 앙상블(아코디언)' 공연이 펼쳐지며 '시나브로 아코디언' 팀의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문의 062-654-432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젊은화전당·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

27일까지 모집하는 시민참여혁신단은 문화전당 서비스 개선 과제부터 혁신성과, 모니터까지 활동 전반에 참여한다.

참여혁신단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 시민,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제안 과제 중 우수과제는 2020년부터 기관 사업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아시아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이메일(kimhs@aci-k.kr)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결과는 7월 첫째 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062-601-432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